

碩學동기 45년 늦게 國校졸업장 韓仁圭 서울農大학장-성기수 과기研 연구소장

조선일보 91.2.23.

『越班』으로 졸업 못해

서울대 농대학장 한인규 박사(58)와 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공학연구소장 성기수 박사(57)가 지난 19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초전국교 졸업식에서 제7848호와 7849호 졸업장을 받았다.

초로의 두 석학은 이날 오전 모교 교사와 재학생 고향친지 등 내빈 3백여명의 축복속에서 손자뻘의 제58회 졸업생 67명에 이어 때늦은 국민학교 명예졸업장을 받고 『박사학위를 받을 때보다 더 기쁘다』면서 감격스러워 했다. 초전면 대장리 마을 소꿉친구로 지난 40년 초천국교에 나란히 입학한 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번갈아 1등을 차지하는 우등생이었다. 5학년때 성 박사가 가정사정으로 칠곡군 왜관국교로 전학하면서 한 박사와 헤어졌으나 그해 두사람 모두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에 합격, 그대로 진학하는 바람에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.

따라서 이들은 입학 후 51년만에 동기생들보다 45년 늦게 졸업장을 받는 감격을 누렸다. 그 후 한 박사는 성주중 성주농고 서울대 농대와 대학원축산과를 졸업하고 美코넬대에서 「동물급식횡수가 체내 대사 및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」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.

동물영양학 전공인 한 박사는 지금까지 30년째 서울대 농대교수로 재직하면서 3백70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한국 축산학회 회장을 거쳐 지금은 세계축산학회 부회장과 전국 농대학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. 성 박사는 경북대사대부중을 거쳐 성주농고에서 다시 한 박사와 만났으나 졸업전 검정고시에 합격, 서울대 공대에 들어갔다. 대학졸업후 잠시 공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美하버드대에 유학, 「자기유체역학의 일반이론」이란 논문으로 공학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후 25년째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다.

컴퓨터박사로 통하는 성 박사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국산전산시스템을 건의하고 실

제로 설치와 운영책임을 맡았다. 이처럼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뒀으나 국민학교동기생이나 고향친지들을 만날 때마다 『우리는 뿌리가 없는 나무나 마찬가지로』라며 국교 졸업장이 없는 것을 허전해 했으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치영 교장(64)이 명예졸업장을 주기로 한 것이다. 모교의 배려로 「월반한 우등생의 불운」을 달랠 수 있게 된 이들은 『우리 모교는 비록 시골의 작은 학교지만 30년 개교이래 김용철전대법원장과 도진희(3대), 송한철(7대), 장동식(9~10대), 이윤기(11대), 김용주의원(11대) 등 국회의원 5명을 포함, 8천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문교』라고 자랑하며 『이처럼 훌륭한 학교의 동창대열에 참여한 기념으로 모교에 필요한 도서를 기증하겠다』고 약속했다고 이교장은 전했다.